

정보행태에 있어 국민성의 의미*

-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에 대한 비교 분석 -

Nationality and Information Behavior: Comparing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2.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
| II. 연구의 논리적 틀 | IV. 연구의 결과와 논점 |
| 1. 핵심 용어의 정의 | 1. 표본집단의 구성과 성향 |
| 2. 조사 대상의 선정 | 2. 국민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
| III. 연구의 설계와 방법 | 3. 주요 변인의 비중과 의미 |
| 1. 연구문제 | V. 결 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행태에 있어 국민성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정보행태에 대한 집단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가늠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성을 대변하는 요소로 국적과 성격(의존성)을 선정하였으며,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10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158명의 한국인 대학생과 183명의 일본인 대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적과 의존성의 상대적 비중을 가늠하기 위한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의 결과, 상대적 비중에 있어 국적의 영향력이 의존성의 영향력보다 크며, 집단적 요인의 비중이 개인적 요인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추구, 정보소스, 정보탐색, 정보정책, 국민성, 성격, 의존성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s of nationality in information behaviour. In this study nationality was represented by citizenship and group personality(here, dependency). Surveys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nd a questionnaire were completed by 331 participants(158 Korean students and 183 Japanese students). Simple frequency tests and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proposed relation between citizenship and information behavior, that between dependency and information behavior. Also conducted was two-way ANOVA test to examine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wo independent variables(citizenship and dependency) in inform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s showed that both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 behavior although the relationship was partially significant. And the results of ANOVA test showed that between the two variables, citizenship was more significant than dependency.

Keyword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Policy, Nationality, Personality, Citizenship, Dependency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접수일: 2010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9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서론

이 연구는 필자가 앞서 발표했던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¹⁾ 선행 연구의 목적이 개인적 변인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밝히는데 있었다면, 이 연구의 목적은 집단적 변인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필자는 국가 혹은 민족 집단에 주목하고자 하며, 특정 국가의 구성원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향(즉, 국민성)이 그들의 정보행태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정보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 못지않게 집단적 성향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구축해 놓은 문헌정보시스템들이 이용률이나 유용성에 있어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과정에 한국인 고유의 문화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정보시스템의 성패는 사회문화적 변인에 민감하며, 특정 정보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이용자 집단의 정보행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보학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국민성과 정보행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가정을 저변에 깔고 출발한다.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연구는 시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주로 인구학적 요소나 직업과 같은 개인적 배경에 주목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역할이나 업무와 같은 개인의 기능적 측면으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인지나 감정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요소에까지 학자들의 관심이 확장되어 왔다.²⁾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적 관점에 집중하고 있을 뿐, 집단적 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국민성의 관점에서 정보행태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 집단들을 사례로 하여 정보행태의 차이를 비교

1) 이제환,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161-182.

2) Donald Case, *Looking for information*, 2nd ed.(New York : Academic press, 2007), pp.237-328. ; C. Kuhlthau,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4(1993), pp.339-355. ; D. Nahl, “Measuring the affective information environment of Web searchers,” *Proceedings of the 67th Annual Meetings*, Vol.41(2004), pp.191-197. ; D. Nahl and C. Tenopir, “Affective and cognitive searching behavior of novice end-users in a full text database,” *JASIS*, Vol.47, No.4(1996), pp.276-286. ; T. Wilson, “Exploring models of information behavior : the ‘Uncertainty’ Project,” In T. Wilson and D. Allen(Ed.), *Exploring the contexts of information behavior*(London : Taylor Graham, 1999), pp.55-66. ; K. Kim, “Effects of emotion control and task on Web searching behavior,”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44(2008), pp.378-385. ; 이제환, 전제논문, pp.3-5.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그러한 시도의 첫 단계로서, 정보행태에 있어 국민성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국민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선별해 내고, 그러한 요소가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국민성과 같은 집단적 요인의 영향을 성별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에 비교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보정책이나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논리적 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민족 집단의 관점에서 국민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이처럼 국민성과 정보행태는 이 연구의 중심 개념이자 연구의 논리적 틀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 두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논의를 위해 사례로 삼은 표본집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번 연구의 결과가 갖게 되는 적용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1. 핵심 용어의 정의

국민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과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국민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성격심리학이나 사회인류학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관련 분야의 학자들은 국민성의 차이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집단 성격(group personality)을 강조해 왔다.³⁾ 이 연구에서도 집단 성격의 측면에서 국민성에 접근하였는데, 성격심리학자들이 집단 성격을 유형화 하는데 활용해온 여러 기준 중에서 특히 의존성에 주목하였다.⁴⁾ 그 까닭은 정보추구의 동기가 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성격을 유형화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였으며, 필자의 앞선 연구에서 의존성은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여러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었다.⁵⁾ 이처럼 의존성은 이 연구에서 국민성의 내면을 대표하

3) S. Shweder, *Thinking through cultures :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2001). ;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2000).

4) 가령, 심리학에서는 인성을 인식과 판단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의해 유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식 방법은 지각과 직관으로, 판단 방법은 사고와 느낌으로 이분화한 후 이러한 단위 속성들을 쌍으로 결합하여 성격유형을 구분하기도 하고,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MBTI에서처럼 내향/외향과 인식/판단과 같이 다른 기준들을 추가하여 성격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성은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며, 국민성의 외형을 가르는 절대 기준인 국적(citizenship)과 함께 논의의 한 축을 구성한다.

한편, 논의를 위한 또 다른 축인 정보행태는 정보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개념 정의, 즉, “정보요구, 정보추구 및 기피, 정보소스의 이용, 그리고 정보탐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였다.⁶⁾ 이러한 기본 정의에 충실하면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정보행태의 의미를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요구의 실체와 그러한 정보요구를 충족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태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적 특성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다음의 열 가지 항목에 주목하였다: 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도, ② 의사결정을 위해 선호하는 정보의 내용, ③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정도, ④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 ⑤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정보소스, ⑥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신뢰하는 정보소스, ⑦ 도서관에서 자료를 탐색할 때 목록을 활용하는 정도, ⑧ 도서관에서 자료를 탐색할 때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도, ⑨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할 때 탐색기능을 활용하는 정도, ⑩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할 때 탐색어를 활용하는 정도.

2. 조사 대상의 선정

이 연구에서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삼은 모집단은 한국인과 일본인이다. 역사적 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을 차지하고라도 한국과 일본은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제도에 있어 끈끈한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 영향의 긍정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외형적 유사성은 대단히 큰 상태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를 대변하는 국민성을 비교한 연구들에 의하면 외형적 동질성 못지않게 내면적 이질성 또한 진하여 ‘가깝고도 먼 이웃’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⁷⁾ 두 민족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사성과 이질성이 “정보행태에서 국민성이 갖는 의미”를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모집단으로 정한 후 양 민족 집단으로부터 대학생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을, 일본에서는 츠크바대학교 재학생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부산대학교와 츠크바대학교는 기관의 정체성과 학문적 우수성에 있어서 매우

5) 앞선 연구에서 성격을 유형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던 감성과 의존성 중에서, 정보행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감성은 제외하고 부분적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검증된 의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6) Donald Case, *op. cit.*, pp.5-7.

7) 한일 간의 문화적 차이를 논의하고 있는 저서들은 두 민족 집단의 이질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진희, 강재언의 *한일교류사*(서울 : 학고재, 1998), 김문길, *일본문화의 이해*(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조궁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서울 : 나남, 2003) 등을 참조.

유사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두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동일 전공자 집단(문헌정보학 전공자)을 의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 변인에 대한 통제를 최대화 하였다. 물론 지역적으로 편중된 소수의 대학생 집단을 표본으로 삼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민족 집단 전체에 대한 보편적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이 향후 민족 집단을 구성하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와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성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에서 국민성은 국적과 의존성에 의해, 그리고 정보행태는 10개의 지표에 의해 대변된다.⁸⁾ 이처럼 국적과 정보행태의 관계, 의존성과 정보행태의 관계를 관련 지표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의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 (1) 국적과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 (2) 의존성과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비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국민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설정한 국적과 의존성이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며, 더불어 (2) 국민성과 같은 집단적 요인의 영향을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연구문제의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의존성과 정보행태에 관한 문항을 구분하여 두 파트로 작성하였다. 먼저, 의존성에 관한 파트는 Harren이 ACDM 모델에서 제시한 ‘의존형’의 식별을 위한 10개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⁹⁾ 이때 개

8) 즉, ① 정보요구의 강도, ② 정보요구의 내용,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 ④ 정보추구의 장애요인, ⑤ 정보소스의 선호도,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⑦ 도서관에서 목록의 활용도, ⑧ 도서관에서 사서의 활용도, ⑨ 인터넷에서 탐색기능의 활용도와 ⑩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

9) Harren은 일상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상이한 성격유형을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각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model을 제시하였다. V.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No.2(1979), pp.119-133. ; 이제환, 전계논문, pp.165-166.

인별 의존도의 측정은 설문참여자로 하여금 10개의 문항에 대해 YES/NO로 답변하게 하고 YES로 답을 하였을 경우 1점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한편, 정보행태에 관한 파트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지표별로 하나씩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답변은 지표의 성격에 따라 4점 척도(즉, 강한 부정=-2, 부정=-1, 긍정=1, 강한 긍정=2)방식이나 순위척도 혹은 조합비교선택 방식을 혼용하였다.

실질적인 설문조사는 2009년 8월과 9월에 한국과 일본의 현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부산대학교와 츠크바대학교에서 모두 341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이들로 부터 수거한 설문지는 SPSS 14.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표본집단의 특성과 정보행태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확보하였으며, 교차분석(chi-square)을 통하여 국민성을 대변하는 두 변인(국적, 의존성)과 정보행태를 대표하는 10개 지표 사이의 통계적 유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더해 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하여 정보행태에 대한 영향에 있어 국적과 의존성이 갖는 상대적 비중을 검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와 논점

1. 표본집단의 구성과 성향

설문조사에 참여한 341명의 배경과 성향은 다음과 같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학생이 158명(약 46%), 일본인 학생이 183명(약 54%)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229명(약 68%), 남학생이 109명(약 32%)이었으며, 학년에 있어서는 저학년(1~2학년)이 183명(약 54%), 고학년(3~4학년)이 158명(약 46%)이었다. 마지막으로 성격, 즉, 의존성에 따라 세부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¹⁰⁾ 독립형이 198명(약 58%)으로 의존형 143명(약 4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한편, 의존성에 따른 집단의 구성비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사이에는 고려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독립형(52.5%)과 의존형(47.5%)의 구성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나,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독립형(62.8%)이 의존형(37.2%)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두 민족 집단 사이에 의존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개인별 의존도의 평균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 대학생의 평균값은 4.52로 일본 대학생의 평균값 3.8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과 의존성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유의확률 $p=0.054$ 에서 χ^2 값이 3.701로 나타나, 두 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긴밀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주었다.¹¹⁾

10) 참고로, 의존도에 따른 집단 분류는 341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별 의존도의 평균값(10점 만점에 4.54)을 먼저 구한 다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형 집단(0~4점)과 의존형 집단(5~10점)으로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표 1〉 표본집단의 구성과 성향 - 변인에 따른 구성비

변인	집단	빈도(명)	비율(%)
국적	한국인	158	46.3
	일본인	183	53.7
성별	남학생	109	32.7
	여학생	229	67.8
학년	저학년	183	53.7
	고학년	158	46.3
성격	독립형	198	58.1
	의존형	143	41.9

2. 국민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가. 국적과 정보행태의 관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은 국적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들 두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chi-square 검증의 결과는 10개의 정보행태 지표 가운데 7개가 $p \leq 0.05$ 에서 국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표 2〉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① 정보요구의 강도, ④ 정보추구의 장애요인, ⑤ 정보소스의 선호도,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⑦ 도서관에서 목록의 활용도, ⑨ 인터넷에서 탐색기능의 활용도, ⑩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 등에서 두 민족 집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교차분석의 결과는 국적과 정보행태 사이에 설정해 놓은 귀무가설(즉, 국적과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을 부분적으로 기각하는데 그침으로써 국적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상당 부분 실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표 2〉 국적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정보행태(IB) 지표	χ^2 값	자유도	점근유의확률(양측검정)
① 정보요구	14.202	3	0.003
② 정보요구의 내용	3.028	1	0.082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	3.145	3	0.370
④ 정보추구의 장애요인	8.511	3	0.037
⑤ 정보소스의 선호도	15.713	4	0.003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13.234	4	0.010
⑦ 도서관에서 목록의 활용도	31.934	3	0.000
⑧ 도서관에서 사서의 활용도	4.109	3	0.250
⑨ 인터넷에서 탐색기능의 활용도	9.669	3	0.022
⑩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	8.252	3	0.041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의 측정을 위해 활용한 Harren의 ACDM 모델이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개인별 의존도의 평균값에서 나타난 차이는 일본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의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국적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는 관련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을 참조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표 3>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즉, 정보요구의 강도)”에 있어서 두 민족 집단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해당 지표의 평균값은 일본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적에 따른 행태의 차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정보요구의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하였지만,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가의 조언(즉, 전문지식)”을 선호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짙게 드러난 반면,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유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즉, 유사경험)”를 선호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짙게 나타났다.

〈표 3〉 국적에 따른 정보요구의 차이 - 기술통계량

	① 정보요구의 강도		② 정보요구의 내용(%)		
	평균값	표준편차	전문지식	유사경험	합계
한국인	-0.01	1.07	67.1	32.9	100.0
일본인	0.26	1.17	57.9	42.1	100.0
전 체	0.13	1.13	62.2	37.8	100.0

이어서 <표 4>의 정보추구 관련 통계는 정보추구의 적극성에 있어서는 두 민족 집단의 차이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표의 평균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모두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보추구의 장애요인에 있어 두 민족 집단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가령,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장애요인으로 ‘자신의 노력부족’과 ‘열악한 정보환경’을 지목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장애요인으로 ‘자신의 무지’와 ‘비용의 부담’을 지목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적에 따른 정보추구의 차이 - 기술통계량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		④ 정보추구의 장애요인(1순위의 비율=%)				
	평균값	표준편차	자신의 노력부족	열악한 정보환경	정보소스와 탐색방법에 대한 무지	탐색비용에 대한 부담	합계
한국인	1.08	0.73	53.8	14.6	28.5	3.1	100.0
일본인	1.03	0.81	46.5	9.3	35.5	8.7	100.0
전 체	1.05	0.77	49.8	11.7	32.3	6.2	100.0

정보행태와 관련한 두 민족 집단의 차이는 정보소스의 선호도와 신뢰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표 5>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지만,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지인과 전문서적 등 다양한 소스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민족 집단의 차이는 정보소스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뚜렷하였다. 가령, 한국 대학생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대해 가장 커다란 신뢰를 보이는 반면, 일본 대학생은 전문가/기관에 더해 전문서적과 지인 등 여러 소스에 대한 신뢰를 고르게 표출하였다. 특히, 지인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신뢰도는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지인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강한 선호도가 신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표 5> 국적에 따른 정보소스의 차이 - 기술통계량

	⑤ 정보소스의 선호도(1순위 비율=%)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1순위 비율=%)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기관	웹사이트	합계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기관	웹사이트	합계
한국인	20.4	5.7	5.7	3.2	65.0	100.0	10.1	8.2	29.1	37.4	15.2	100.0
일본인	31.3	5.5	13.7	4.4	45.1	100.0	24.0	6.0	30.6	27.9	11.5	100.0
전체	26.3	5.6	10.0	3.8	54.3	100.0	17.6	7.0	29.9	32.3	13.2	100.0

한편, 정보탐색에 있어서도 두 민족 집단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령, <표 6>의 통계는 '도서관 자료의 탐색을 위한 목록의 활용도'에 있어서 두 민족 집단의 차이가 확연함을 보여준다. 정보탐색의 도구로 목록을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성에 있어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태도가 나타나지만,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탐색에 있어서도 두 민족 집단의 행태는 대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탐색기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탐색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일본 대학생들의 적극성이 한국 대학생들을 앞서고 있었다.

<표 6> 국적에 따른 정보탐색의 차이 - 기술통계량

	도서관에서의 탐색				인터넷에서의 탐색			
	⑦ 목록의 활용도		⑧ 사서의 활용도		⑨ 탐색기능의 활용도		⑩ 탐색어의 활용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한국인	0.03	1.25	-0.27	1.22	-0.24	1.07	0.84	0.92
일본인	-0.72	1.13	-0.19	1.29	-0.40	1.15	1.09	0.86
전체	-0.37	1.24	-0.23	1.26	-0.32	1.26	0.97	0.90

이렇듯 빈도분석을 통해 얻은 기술통계는 두 민족 집단의 정보행태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된 7개 지표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했던 3개의 지표에서도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사이에는 고려할 만한 행태적 차이가 있었다. 이렇듯 국적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는 “국적과 정보행태의 관계는 긴밀하다”는 필자의 가정에 객관적인 타당성을 실어주었다.

나. 의존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두 번째 가설은 의존성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들 두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Chi-square 검증의 결과는 10개의 정보행태 지표 가운데 4개가 $p \leq 0.05$ 에서 의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표 7>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① 정보요구의 강도,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⑩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에서 의존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의존성과 정보행태 사이에 설정해 놓은 귀무가설(즉, 의존성과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을 온전히 기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표 7> 의존성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Chi-square 검증 결과

정보행태(IB) 지표	χ^2 값	자유도	점근유의확률(양측검정)
① 정보요구의 강도	12.395	3	0.006
② 정보요구의 내용	0.780	1	0.377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	7.938	3	0.047
④ 정보추구의 장애요인	0.843	3	0.839
⑤ 정보소스의 선호도	8.083	4	0.089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9.775	4	0.044
⑦ 도서관에서 목록의 활용도	0.716	3	0.869
⑧ 도서관에서 사서의 활용도	3.702	3	0.296
⑨ 인터넷에서 탐색기능의 활용도	0.825	3	0.699
⑩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	9.181	3	0.027

국적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존성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 또한 관련 지표들의 기술 통계량을 활용하면 그 속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령, <표 8>에 정리해 놓은 기술통계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의 영역에서 의존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의존형 집단이 독립형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성에 있어서는 독립형 집단이 의존형 집단에 상대적으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의존성에 따른 정보요구와 정보추구의 차이 - 기술통계량

	① 정보요구의 강도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독립형	-0.05	1.14	1.15	0.68
의존형	0.38	1.07	0.92	0.87
전 체	0.13	1.13	1.05	0.77

다음으로 정보소스와 관련하여서도 의존성에 따른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소스의 선호도에 있어서 ‘지인과 같은 비공식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가 독립형 집단보다 의존형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전문서적이나 전문기관과 같은 공식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는 의존형 집단보다 독립형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정보소스의 신뢰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의존형 집단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독립형 집단에서는 전문서적과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되었다.

〈표 9〉 의존성에 따른 정보소스의 차이 - 기술통계량

	⑤ 정보소스의 선호도 (1순위 비율=%)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1순위 비율=%)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기관	웹사이트	합계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기관	웹사이트	합계
독립형	20.9	6.1	12.3	4.1	56.6	100.0	17.7	3.5	30.8	32.8	15.2	100.0
의존형	33.6	4.9	7.0	3.5	51.0	100.0	17.5	11.9	28.7	31.4	10.5	100.0
전 체	26.3	5.6	10.0	3.8	54.3	100.0	17.6	7.0	29.9	32.3	13.2	100.0

한편, 정보탐색의 영역에서 의존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지, 인터넷에서 ‘탐색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두 집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는데, 〈표 10〉의 관련 평균값이 보여주듯이, 독립형 집단이 의존형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곤, 인터넷의 탐색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나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와 방법에 있어서 독립형 집단과 의존형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리하면, 의존성에 대한 통계 검증을 통해, 의존성이 클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많은 외부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구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 지인과 같은 비공식 인적 정보소스를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정보탐색시 단순한 방법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의 결과는

“의존성과 정보행태의 관계는 긴밀하다”는 필자의 가정에 긍정적인 무게를 실어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였다.

〈표 10〉 의존성에 따른 정보탐색의 차이 - 기술통계량

	인터넷에서의 탐색			
	㉑ 탐색기능의 활용도		㉒ 탐색어의 활용도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독립형	-0.30	1.14	1.06	0.89
의존형	-0.35	1.09	0.85	0.90
전 체	-0.33	1.12	0.97	0.90

3. 주요 변인의 비중과 의미

가. 국적과 의존성의 비중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행태에 있어 국적과 의존성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고자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을 통해 속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적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의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보다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적과 의존성의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해 얻은 χ^2 값에 대한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즉, 교차분석에서 국적과 의존성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된 3개의 정보행태 지표, 즉, ① 정보요구의 강도, ⑥ 정보소스의 신뢰도, ⑩ 탐색어의 활용도의 χ^2 값을 비교해 보면, 국적에서의 값이 의존성에서의 값보다 전반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2와 표 7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만 의존하여 국적과 의존성이 갖는 상대적 비중을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교차분석의 결과가 갖는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국적과 의존성을 독립 변인으로 삼고 정보행태의 10개 지표를 종속 변인으로 삼아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교차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p \leq 0.05$ 에서 국적 혹은 의존성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모두 9번이었다. 이 중에서 국적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이 6번, 의존성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이 3번이었다.¹²⁾ 이러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교차분석의 결과에 더해,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국적이 의존성 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12) 이처럼 주효과로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빈도에서는 물론이고 관련 지표의 P와 F값을 비교해 보아도 국적이 의존성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정보행태에 대한 국적과 성격의 영향 - ANOVA 검증 결과

종속 변인(정보행태의 지표)	주효과(main effects)	F	P-value
정보요구의 강도	국적	6.471	0.011
	성격	14.439	0.000
정보요구의 내용	국적	3.559	0.060
	성격	1.108	0.293
정보추구의 적극성	국적	0.655	0.419
	성격	8.030	0.005
정보추구의 장애요인	국적	5.905	0.016
	성격	0.005	0.942
정보소스의 선호도	국적	11.790	0.001
	성격	5.073	0.025
정보소스의 신뢰도	국적	10.250	0.001
	성격	2.932	0.088
도서관에서 목록의 활용도	국적	34.431	0.000
	성격	1.220	0.270
도서관에서 사서의 활용도	국적	0.083	0.774
	성격	1.760	0.185
인터넷에서 탐색기능의 활용도	국적	1.810	0.179
	성격	0.306	0.580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	국적	5.700	0.018
	성격	3.591	0.059

나. 집단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한편, 이 연구에서 국민성을 대변하는 요인으로 선택한 국적과 의존성은 변인으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대조적이다. 즉, 국적이 집단적 특성의 변인이라면, 의존성은 개인적 성격을 나타내는 변인이다. 앞서 우리는 교차분석과 ANOVA 검증을 통해 정보행태와 관련하여 국적의 영향력이 의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집단적 변인의 영향력이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보다 클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이러한 추론이 갖는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개인적 변인을 선정하여 그들이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 실험을 위해 필자가 선정한 개인적 변인은 성별과 학년이었다. 이 연구의 표본집단을 구성하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적절히 대표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들 두 변인과 정보행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성별과 학년이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국적이나 의존성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10개의 정보행태 지표 가운데 2개와 $p \leq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었으며, 학년은 정보행태의 어느 지표와도 $p \leq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처럼 실험의 결과는 집단적 변인이 개인적 변인

에 비해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위의 실험 결과가 갖는 타당성은 표본집단을 민족 집단별로 분류한 후, 각 민족 집단 내에서 성별, 성별, 학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가령, 이들 변인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의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선명하였지만,¹⁴⁾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의존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¹⁵⁾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학년에서도 드러났다. 가령,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났지만,¹⁶⁾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의 경우는 성별과 대조적이어서,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학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¹⁷⁾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학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¹⁸⁾

정리하면,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분리하여 실시한 개인적 변인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은 민족 집단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의존성과 학년이 나름대로 변별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단지 성별만이 그것도 미약한 수준의 변별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적 변인들은 민족 집단에 따라 그 영향력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 다시 말해, 여러 민족의 정보행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변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필자가 실행한 일련의 실험의 결과는 “정보행태에 있어 집단적 요인의 비중이 개인적 요인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필자의 가정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무게를 더해 주었다.

V. 결 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단순하였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개발해 왔던 국가 단위의 문헌정보시스템들이 이용자, 즉 우리 국민의 뜨거운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정보행태적 관점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필자는 정보행태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머금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문화적 배경과 성향이 상이한 사람들은 정보행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정보행태가 우리와는 다른 국가의 모델을 참조하여 문헌정보시스템들을 개발하였을 경우,

13) 참고로, 성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지표는 도서관에서 목록의 활용도와 인터넷에서 탐색어의 활용도로 성별은 정보탐색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4) 교차분석의 결과, 6개의 정보행태 지표가 $p \leq 0.05$ 에서 의존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15) 교차분석의 결과, 단 1개의 정보행태 지표만이 $p \leq 0.05$ 에서 의존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16) 교차분석의 결과, 2개의 정보행태 지표가 $p \leq 0.05$ 에서 학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17) 교차분석의 결과, 4개의 정보행태 지표가 $p \leq 0.05$ 에서 학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18) 교차분석의 결과, 단 1개의 정보행태 지표만이 $p \leq 0.05$ 에서 학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그 시스템이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 끝에 기존의 정보행태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져 왔던 영향 요인들을 국가 혹은 민족 집단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일었다. 즉, 여러 정보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개인적 변인에 더해 국가라고 하는 집단적 변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고 싶었다. 특히,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 변인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필자가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변인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비교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국과 일본에서 대학생 집단을 표본으로 삼아 ‘필자의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았다.

검증 결과, 비록 이 연구에서 설정한 표본에 제한되지만, 필자의 가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집단적 변인인 국적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가 개인적 변인인 성격, 성별, 학년 등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본으로 선정한 한국인과 일본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서, 그러한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성의 정도”에서, 일상적으로 “선호하고 신뢰하는 정보 소스의 유형”에서, 그리고 “정보를 탐색하는 태도와 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동일한 표본집단을 개인적 변인에 따라 소집단으로 분류한 후 검증해본 결과에 비해 그 의미가 훨씬 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필자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국민성과 정보행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온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정이 이론적 보편성을 얻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성에 따른 차이를 밝혀내는 작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필자의 의도대로 작업을 진행하려면 ‘집단 성격’의 측면에서 국민성을 드러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변인의 확보가 절실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존성을, 앞선 연구에서는 감성과 의존성을 ‘성격’을 대변하는 변인으로 활용해 보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집단 성격, 특히, 국민성을 대표하는 내적 요소로서 의존성이나 감성 보다 ‘적합’한 새로운 변인들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새로운 변인을 찾아내는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변인의 값을 측정하는 도구의 적합성을 증진하기 위한 모색이다. 가령, 이 연구에서 의존성의 측정을 위해 활용한 Harren의 ACDM 모델이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도구로서 적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그 까닭은 설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Harren의 모델에 따라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두 조사의 결과가 유사하였으나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두 조사의 결과가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¹⁹⁾ 이처럼 보

19) 즉, 일본 대학생 집단의 경우, Harren의 결과에서는 의존형 보다 독립형이 많았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결과에서는 정반대로 독립형 보다 의존형이 많았다.

다 객관적이며 합리성을 갖춘 측정도구의 개발 혹은 확보는 후속 연구가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더해, 정보행태에 대한 분석을 ‘설문을 통한 의견 파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관찰이나 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보강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황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검색실험을 통해 정보탐색행태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이 연구에서 논의했던 연구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비교 대상 세부집단을 다양화하는 시도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례로 삼은 대학생 집단에 더해, 연령이나 직업 혹은 경제력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세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때,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의 성립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문길. 일본문화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제환.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161-182.
- 이진희, 강재언. 한일교류사. 서울 : 학고재, 1998.
- 조공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서울 : 나남출판사, 2003.
- Case, D. *Looking for information :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2nd ed. New York : Academic Press, 2007.
- Cole, M. *Cultural psychology :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Boston,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2001.
- Kim, K. “Effects of emotion control and task on Web searching behavior.”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44(2008), pp.378-385.
- Kitayama, S. and Markus, H.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 Kuhlthau, C. “Inside the search process :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2, No.5(1991), pp.361-371.
- Kuhlthau, C.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 Vol.49, No.4(1993), pp.339-355.
- Nahl, D. "Measuring the affective information environment of Web search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41(2004), pp.191-197.
- Nahl, D. "Affective Load." In Karen Fisher et al.(Eds.).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ur*. Medford, NJ : Information Today Inc., 2005, pp.39-43.
- Nahl, D. and Tenopir, C. "Affective and cognitive searching behaviour of novice end-users in a full text databas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7, No.4(1996), pp.276-286.
- Shweder, S. *Thinking through cultures :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Wang, P. et al. "Users' interaction with World Wide Web resources : an exploratory studying using a holistic approach."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36(2000), pp.229-251.
- Wilson, T. "Exploring models of information behaviour : the 'Uncertainty' Project." In Wilson, T.D. and Allen, D.K.(Eds.). *Exploring the contexts of information behaviour*. London : Taylor Graham, 1999, pp.55-66.
- Wilson, T. et al. "Uncertainty and its Correlates." In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 Studies of Information Seeking in Context*. Cambridge, UK : Taylor Graham, 2000, pp.69-82.

〈부록〉 설 문 지

성별	남_____ 여_____	학년	1학년_____ 2학년_____ 3학년_____ 4학년_____
----	---------------	----	-------------------------------------

■ 다음의 문항을 읽고 문항의 내용에 동의하면 YES에, 그렇지 않으면 NO에 표기(✓)하십시오.

	설문 문항	YES	NO
D1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D2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D3	나는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D4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D5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D6	나는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D7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D8	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D9	내가 내리는 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D10	나는 대부분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적합한 답에 표기(✓) 하십시오.

1. 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가령, 동아리의 가입이나 병원의 선택과 같은) 정보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_____ ② 그렇지 않다_____ ③ 그렇다_____ ④ 자주 그렇다_____

2.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나는 _____을 더욱 필요로 한다.

- ①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적인 조언
 ② 유사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3. 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가능한 구하고자 노력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_____ ② 그렇지 않다_____ ③ 그렇다_____ ④ 매우 그렇다_____

4. 내가 필요한 정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_____ 때문이다. (하나만 선택)
- 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 ② 주변의 정보환경이 열악하기
 - ③ 정보소스와 탐색방법을 모르기
 - ④ 탐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 ⑤ 기타
5.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내가 가장 선호하는 정보소스는 _____이다. (하나만 선택)
- ①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
 - ② 대중매체(신문, 방송 등)
 - ③ 전문 서적(책이나 잡지)
 - ④ 전문가나 전문기관/단체
 - ⑤ 인터넷의 웹사이트나 카페
6.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정보소스는 _____이다. (하나만 선택)
- ① 지인(가족, 친구, 동료 등)
 - ② 대중매체(신문, 방송 등)
 - ③ 전문 서적(책이나 잡지)
 - ④ 전문가나 전문기관/단체
 - ⑤ 인터넷의 웹사이트나 카페
7.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나는 도서관 목록을 활용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____ ② 그렇지 않다____ ③ 그렇다____ ④ 매우 그렇다____
8.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나는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____ ② 그렇지 않다____ ③ 그렇다____ ④ 매우 그렇다____
9.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나는 고급 탐색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____ ② 그렇지 않다____ ③ 그렇다____ ④ 매우 그렇다____
10.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나는 가능한 여러 개의 탐색어를 사용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____ ② 그렇지 않다____ ③ 그렇다____ ④ 매우 그렇다____

